



1 비프 웰링턴
2 앙파수프
3 밀푼유



1 3

특별한 날 누구나 즐기는 프랑스 요리

당찬 맛집을 찾아서

<198> 제주시 애월읍 '컨플루언스'

육즙 가득한 '비프 웰링턴' 대표 음식 앙파수프·밀푼유도 맛보는 코스 요리 유럽풍 인테리어·돌담 어우러진 가게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장소에서 음식을 맛보며 기분을 내고 싶기 마련이다. 이런 날 주로 찾는 앙식 레스토랑에는 대중적 친숙한 피자파스타를 떠올리기 쉽지만 평소 접하기 힘든 프랑스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제주에 있다. 바로 제주의 한적한 마을 광지에 위치한 '컨플루언스'다.

'컨플루언스'를 운영하는 하길주(35) 대표는 요리경력만 10년이 넘는다. 12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의 서울캠퍼스에서 요리를 배우다가 문득 프랑스에서 직접 요리와 언어를 배우고 싶어 리옹이라는 작은 마을로 떠났다고 한다. 이후 2년 정도 살던 경험을 쌓은 뒤, 현지에서 배운 프랑스 요리를 제주에서 직접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지난해 9월 '컨플루언스'를 오픈했다.

가게로 들어서자 유럽풍의 가게 인테리어와 큼직한 창밖으로 보이는 돌담이 잘 어우러지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주도민에게는 익숙한 돌담이지만 관광객들은 독특한 조합에 감탄하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 대표의 설명했다.

'컨플루언스'는 모두 코스요리로 제공된다. 음식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랑스 요리의 특성상, 100% 예약제로 가게가 운영된다.

비프 웰링턴 런치 코스 요리의 시작은 세리와인 식초를 넣은 앙파수프다. 얇게 썬 앙파를 약불에 4-5시간가량 볶아서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 진하게 끓인 소고기 육수에 세리와인 식초, 바게트 빵과 스위스 치즈를 갈아 넣고 오븐에서 마무리한다. 수프 하나를 만드는 데도 하 대표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요리는 '컨플루언스'의 대표 음식이자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시그니처 메뉴인 '비프 웰링턴(Beef Wellington)'이다. 비프 웰링턴은 소고기의 안심 부위 덩어리에 두 가지 종류의 머스타드 소스를 바르고 버섯을 볶아서 만든 페이스트 덕셀(Duxelle)을 바른 다음 스페인의 대표적인 생선인 하몽과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고기를 감싸고 구워낸 소고기 요리이다. 만드는 데에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고기의 표면을 꼼꼼하게 감싸고 굽기 때문에 육즙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잘 감싼 비프 웰링턴을 칼로 자르자 소고기의 육즙이 잘린 단면을 따라 흘러내렸다. 메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 하 대표는 비프 웰링턴을 다시 주방으로 가지고 갔다. 잠시 후 트러플 오일과 소금이 들어간 매쉬드 포테이토와 레드와인을 졸인 소스, 그리고 알맞게 볶은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가 조화롭게 비프 웰링턴과 이쁘게 담겨져 나타났다. 비프 웰링턴을 큼지막하게 잘라 한입 베어 물자 넘치는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 소고기 주위를 둘러싼 양념과 반죽이 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을 선사했다.

하 대표는 "프랑스 요리는 쉽게 접하기 힘들어 맛이 독특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대중적이고 과하지 않은 맛이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코스 요리의 마무리는 단연 디저트다. '컨플루언스'에서는 제철 과일을 곁들인 프랑스 대표적인 디저트인 밀푼유가 제공된다. 밀푼유는 프랑스어로 천 겹, 천 개의 이파리를 뜻한다. 그 이름에 걸맞게 파이 반죽도 겹겹이 얇게 포개 만들어졌다. 반죽 사이사이로는 마스코네 치즈 크림을 넣고 그 위로 딸기와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을 올려 신선함을 더했다. 다소 무거운 음식을 먹은 뒤라 "밀푼유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입 먹은 순간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많이 달지 않고 담백한 크림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얇은 파이 반죽이 입안에 남겨졌던 메인 요리의 여운을 상큼하게 날려주는 기분이다.

하 대표는 "누구나 특별한 날에 찾아와 프랑스 요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컨플루언스'는 제주시 애월읍 광지남3길 14에 위치해 있다. 매일 낮 12시~3시, 오후 6시~11시까지 운영하며 수요일은 휴무다. 런치 비프 웰링턴 3코스(2인 이상 주문 가능) 5만5000원, 런치 3코스 3만5000원, 디너 비프 웰링턴 4코스 6만 5000원, 디너 4코스 4만5000원 등이다. 고기 원산지별로 가격이 바뀔 수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다. 문의=064-799-5232.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

영화觀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찰 예능과 음악 예능 콘텐츠로 가득한 TV 프로그램 사이에서 신선한 기획의 콘텐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각기 다른 이유와 조건들로 새로 살아야 할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소개해주는 MBC의 '구해줘 홈즈'가 그것이다. 집 소개라기 보다는 매물을 소개하는 온라인 부동산 같은 프로그램인데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흥미롭고 남의 집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를 보다 보면 참 많은 집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수십년 전만 해도 4인 가족 규격화에 맞춘 집들이 많았다면 1인가구가 많아진 요즘의 집들은 외부도 내부도 다 다르다. 엘리베이터 같은 신축 빌라의 멋들어짐에 입을 딱 벌리다가 오래된 구옥에 묻은 따뜻한 세월을 보며 저것 또한 집의 큰 매력이지 하고 옛 추억에 잠기게 된다.

집은 어떤 공간일까 하며 생각하다가 지난 해 봤던 영화 '집 이야기' 생각이 났다. 박제범 감독의 데뷔작인 이 작품은 맑은 구석이 없는 부녀의 예상치 못한 동거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과 관계라는 시간에 대해 담담하게 묻고 있는 작품이다. 서울에서 신문사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는 은서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갈 집을 구하지만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는 일이 수월하지가 않다. 결국 새 집을 찾기 전까지 지낼 공간이 필요한 은서는 이혼한 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는 인천의 집으로 들어온다. 24시간 열쇠 수리점을 하고 있는 아버지 진철과의 아주 오랜만의 동거 역시 쉬운 구석이 없다. 은서의 어린 시절엔 함께 사는 집을 만들어가던 두 사람에게

각자의 집, 그 곳에서의 삶이 더 익숙해져버렸고 낯은 집에 묻어 있는 추억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이 집의 상처를 상기시킨다. 영화의 초반부, 은서는 제주도로 향한다.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재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푸른 바다 앞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어머니를 보는 은서의 복잡 미묘한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무뚝뚝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막내딸에



영화 '집 이야기' 포스터.

게 잘해주고 싶은 아버지 진철. 딸이 온다는 소식에 손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녀가 머무를 방을 치운다. 그런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을 냉랭 잡지 못하는 은서는 집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수십년 전만 해도 4인 가족 규격화에 맞춘 집들이 많았다면 1인가구가 많아진 요즘의 집들은 외부도 내부도 다 다르다. 엘리베이터 같은 신축 빌라의 멋들어짐에 입을 딱 벌리다가 오래된 구옥에 묻은 따뜻한 세월을 보며 저것 또한 집의 큰 매력이지 하고 옛 추억에 잠기게 된다.

집은 어떤 공간일까 하며 생각하다가 지난 해 봤던 영화 '집 이야기' 생각이 났다. 박제범 감독의 데뷔작인 이 작품은 맑은 구석이 없는 부녀의 예상치 못한 동거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과 관계라는 시간에 대해 담담하게 묻고 있는 작품이다. 서울에서 신문사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는 은서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갈 집을 구하지만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는 일이 수월하지가 않다. 결국 새 집을 찾기 전까지 지낼 공간이 필요한 은서는 이혼한 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는 인천의 집으로 들어온다. 24시간 열쇠 수리점을 하고 있는 아버지 진철과의 아주 오랜만의 동거 역시 쉬운 구석이 없다. 은서의 어린 시절엔 함께 사는 집을 만들어가던 두 사람에게

각자의 집, 그 곳에서의 삶이 더 익숙해져버렸고 낯은 집에 묻어 있는 추억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이 집의 상처를 상기시킨다. 영화의 초반부, 은서는 제주도로 향한다.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재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푸른 바다 앞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어머니를 보는 은서의 복잡 미묘한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무뚝뚝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막내딸에

각자의 집, 그 곳에서의 삶이 더 익숙해져버렸고 낯은 집에 묻어 있는 추억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이 집의 상처를 상기시킨다. 영화의 초반부, 은서는 제주도로 향한다.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재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푸른 바다 앞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어머니를 보는 은서의 복잡 미묘한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무뚝뚝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막내딸에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우리집 한달 전기요금
104,140원

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옆집 한달 전기요금
17,690원

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분할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절감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